

광주 건축 현재와 미래를 보다

26~29일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공모전 수상작 전시...시청 시민홀 자랑스런 건축인에 강남구 건축사

최근 들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책자와 TV 프로그램 등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 국내외 건축물을 찾아 기행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광주 지역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해보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건축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신정철·이하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해마다 지역 건축인과 건축에 관심있는 시민, 건축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회장 정인제),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유창균),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김종원)가 모인 단체다.

제 1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26일 오전 11시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사진공모전 등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를 비롯해 건축체험, 건축민원 상담 등이 진행된다.

제26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품전은 대표적 행사다. 올해는 시상 부문을 세분화해 사회공공, 민간, 주거, 리모델링 분야로 나눠 수상작을 선정했다. 또 지역 건축 작품 아카이빙을 위해 21~25회 수상자 중 우수작품을 선정, 건축사의 인터뷰와 함께 세부 내용을 전시한다. '더 시너지 집단' (박재홍 건축사), '화정동 1245' (이순미 건축사), '양림동 공예특화거리(박종호 건축사), '어반브룩(정명환 건축사) 등이다.



강남구 건축사

도시공간을 찾아 시상하는 '2022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품전에서는 공개 공지, 담장 가로, 찜 지공원, 옥상녹화 등을 만날 수 있다 '공유락락-즐거움이 있는 공간, 함께 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열렸던 제 5회 광주건축대전 수상작품전도 눈길을 끈다. 대상을 수상한 이동현의 '방식의 변경'을 비롯해 최우수상 수상작 정유철의 '일상속, 풍경의 재배치' 등이 전시되며 23일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열렸던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대회',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광주전남 건축전공학과 학생 우수작품전 수상작도 전시된다.

또 '건축 체험교실'이 운영되며 건축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건축민원상담 코너도 마련된다. 온라인 전시는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강원도, 경기도, 경남, 제주도 등 4개 지역의 건축문화상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 다양한 건축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광주·전남 건축가협회 회원 17명이 2021~2022년현상공모에서 수상한 33작품을 전시하며 광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찾아 시상하는 '2022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품전에서는 공개 공지, 담장 가로, 찜 지공원, 옥상녹화 등을 만날 수 있다

'공유락락-즐거움이 있는 공간, 함께 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열렸던 제 5회 광주건축대전 수상작품전도 눈길을 끈다. 대상을 수상한 이동현의 '방식의 변경'을 비롯해 최우수상 수상작 정유철의 '일상속, 풍경의 재배치' 등이 전시되며 23일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열렸던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대회',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광주전남 건축전공학과 학생 우수작품전 수상작도 전시된다.

또 '건축 체험교실'이 운영되며 건축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건축민원상담 코너도 마련된다. 온라인 전시는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제19회 광주 건축도시 문화제

를 맞아 신정철 회장 등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나무심는 건축인'을 창립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아름다운가게 광주시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크로키 모임 '토요일에 만난 사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회에도 참여했다.

강 명예회장은 광주건축가협회장과 광주건축단체 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남구·북구미래아동병원으로 광주시건축상을 수상했다.

25일 오후 6시 30분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그랜드볼룸홀에서는 '건축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광주시건축상 시상, 공모패 전달,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 추대패 전달,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

한편 연합회 소속 건축 단체들은 올 한해동안 건축도시 심포지엄, 광주·전남건축전공학생 우수작품전, 건축디자인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빛과 그림자 속의 발레'

광주시립발레단 '살롱콘서트Ⅱ'...11월3일~5일 시민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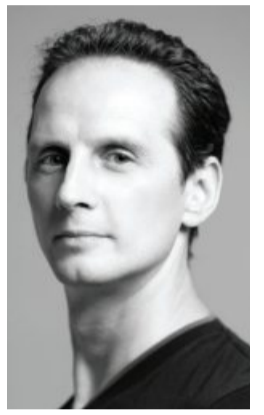
실수 없는 무대를 위한 무용수들의 연습 장면과 이에 대한 결과물인 화려한 무대까지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광주시립발레단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광주시립발레단 수시 공연 발레살롱콘서트Ⅱ '빛과 그림자 속의 발레'를 선보인다. 공연은 3일과 4일에는 오후 7시 30분, 5일에는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먼저 1부 공연으로 키릴자레스키 광주시립발레단 부예술감독의 발레 수업이 펼쳐진다. 관객들은 무대를 보며 평소 무용수들이 공연에 올라가기 전 어떻게 훈련하는지, 발레 마스터는 무용수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엿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코펠리아' 1막 중 주인공이 추는 2인무와 친구들이 추는 경쾌한 군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어서 '레이몬다' 3막 중 결혼식 축하연 장면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형기리풍 동작의 우아함을 전달한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발레



키릴자레스키

자 한다"고 밝혔다.

작품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1만원이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호두까기 인형' 송년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

보편적 일상, 특별한 해석

박경화 퍼포먼스 개인전, 22일 컬처호텔 램 1층 미술관

광주에서 보기 드문 퍼포먼스 개인전이 열린다. 소설가로,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중인 박경화 작가가 주인공이다. 22일(오후 6시 30분~8시 30분) 광주 예술의 거리 컬처호텔 램 1층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데라토 칸타빌레'다.

지난 2000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태엽감는 여자', '딤섬' 등의 작품을 발표한 박 작가는 2012년 광주국제미디어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에서 진행규레이터를 맡은 것을 계기로 국내 대표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작가가 창안한 '퍼포먼스아트아카데미 인 광주' 퍼포먼스아트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 본격적인 퍼포먼스아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2013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 퍼포먼스아트갤러리 뉴욕 '그레이스하버비전스페이스'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은 그는 2014~2018년까지 매년 유럽과 북미 등으로 아트 투어를 떠나고 다양한 아트 페

스티벌에 초청받아 '어항' 등의 작품을 발표해왔다.

'비바! 예술로, 그대를 위한 7개의 예술선물'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박 작가는 '모데라토 칸타빌레', '어항', '나의 처절한 낙원' 세 파트로 나눠 무대를 선보인다.

'일반적 관조적 여유'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는 그의 무대는 덩달히 지켜보기, 차분히 관람하기, 힘빼고 생각하기 등 '생활과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여기에 나무, 식물, 꽃, 물고기, 와인 등의 오브제를 사용해 보통사람들의 보편적 일상에 특별한 해석을 첨가한다.

그의 무대는 소설과 퍼포먼스아트는 두 개의 축을 갖고 활동하는 특성을 반영, 한편의 은유적인 시 같고 강렬한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전시는 또 한국 퍼포먼스아트 56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작가로는 드물게 갖는 개인 작품전이라는 점



박경화 작가의 퍼포먼스 '어항'

에서도 주목된다

박 작가는 국제투어 에피소드를 주제로 한 에세이 집으로 폴란드 6개도시 아트투어를 담은 '매혹하는 사람들(2018)', 세계 9개도시 아트투어를 담은 '천사가 오는 방법'(2021년)을 발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들과 '주먹밥 피크닉'

광주디자인진흥원, 22일 페스티벌...경연·나눔·체험 등

광주 대표 음식 '광주주먹밥'을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린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2일 오후 1시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광주주먹밥 피크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주먹밥의 브랜드화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광주주먹밥 도시락 경연대회, 주먹밥 나누기, 낭만 버스킹,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는 판매업소가 준비한 주먹밥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리며 별문 매직쇼, 통기타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오후 2시부터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다양한 컨셉의 광주주먹밥 도시락을 선보이는 경연을 펼치며 대회 결과물로 나온 도시락은 현장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또 광주주먹밥 만들기 시연을 통해서도 시민들과 나눔을 가질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주먹밥'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광주 주먹밥 정선'을 실현하기 위해 점주들은 장애인 보호 센터 등에 도시락 기부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광주주먹밥 캐릭터를 만나는 포토존을 운영하며 광주주먹밥을 소재로 한 각종 굿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또 매트와, 그들막 등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